

AI 시대의 토끼와 거북이

글/그림 : [Your Studio Name]



작가
AI도움받아 000쌤

작가프로필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 완성

유영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일상 속 빛나는 추억을 찾아 판타지 동화로 빚어내는 스토리 작가입니다. 형에게 물려받은 자전거, 달콤한 찐 옥수수, 그리고 곁을 지켜주던 반려견 '해피'와의 소중한 기억을 바탕으로 본 신작을 집필했습니다.

작가는 학교에 갈 때마다 아쉬움에 킁킁거리던 아기 강아지의 애뜻한 눈빛을 모험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켰으며,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따듯한 필치로 담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소박한 삶과 마음속 깊은 진심을 연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같이 달리는 시합

숲속의 귀염둥이 토끼와 느림보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 시합은 서로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빛나는 '협력의 아치'까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지요.

"거북아, 오늘도 같이 힘내서 가자!"

"응, 토끼야! 나도 힘차게 걸어가 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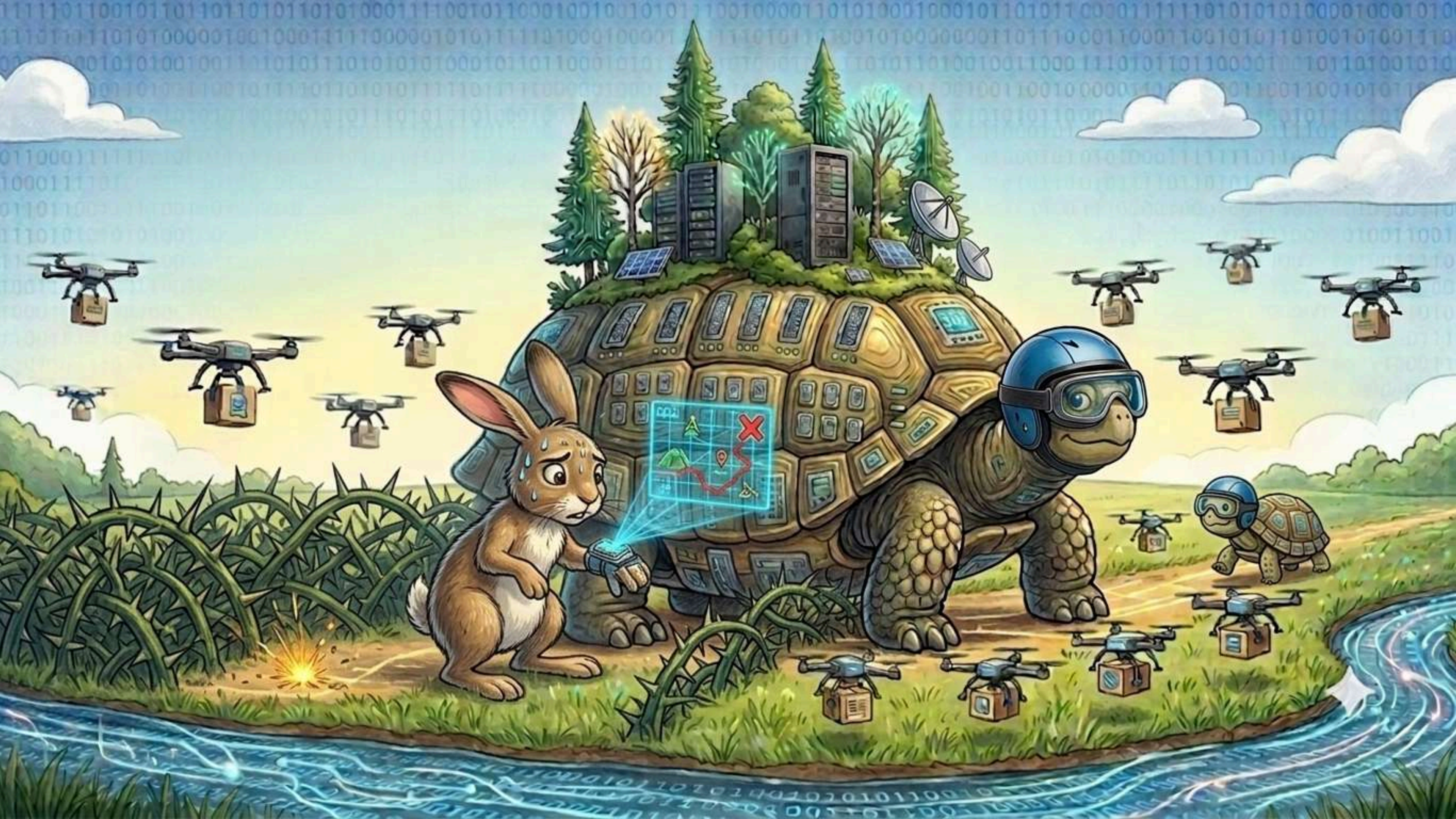


2장: 출발과 토끼의 내비게이션 글러브

"출발!"

소리와 함께 토끼가 가볍게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토끼는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작은 '내비게이션 글러브'를 손에 끼고 있었지요. 거북이도 머리에 파란색 스마트 헬멧을 쓰고 한 걸음씩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헬멧의 구글 화면에는 숲속 지도가 조그맣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3장: 토끼에게 찾아온 위기

한참을 신나게 달리던 토끼가 그만 멈춰 섰어요. 눈앞에 뾰족뾰족한 가시덤불 길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덩불이 너무 뾰뾰해서 도무지 지나갈 수가 없었지요.

"으악, 길이 가시로 꽉 막혔잖아! 어쩌지?"

당황한 토끼는 글러브의 지도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토끼는 덩불 앞에 주저앉아 거북이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4장: 머리를 맞댄 두 친구

잠시 후, 땀을 흘리며 걸어온 거북이가 토끼를 발견했어요.

"토끼야, 왜 여기서 쉬고 있어?"

"거북아, 이 가시덤불을 좀 봐. 너무 뾰족해서 내가 넘어가려다간 온몸이 긁힐 거야."

거북이는 자신의 머리에 쓴 단단한 파란 헬멧과 등에 있는 단단한 껍질을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5장: 용기 있게 헤쳐 나가는 길

"토끼야! 내 헬멧이랑 등껍질은 아주 단단해.

내가 가시를 몸으로 꼭 누르며 길을 만들 테니, 너는 내 뒤를 바짝 따라와!"

"영차, 영차!" 거북이가 단단한 껍질로 앞장서서 가시를 헤치자,

정말로 좁은 길이 만들어졌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다치지 않게 뒤에서 등을 살며시 밀어주며 조심조심 뒤를 따랐어요.

두 친구의 용기 덕분에 가시덤불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6장: 눈앞에 나타난 넓은 강

가시덤불을 지나자, 이번에는 물살이 출렁이는 넓고 푸른 강이 나타났어요.
징검다리도 없고 깊어 보여서 두 친구는 다시 고민에 빠졌지요.

"이 강은 너무 깊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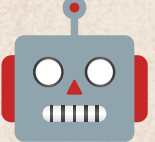
수영을 못 하는 나는 어떻게 건너지?"

토끼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어요.



7장: 헬멧이 알려준 조그만 힌트

그때 거북이 헬멧의 고글 화면에 조그만 안내 문구가 한 줄 떴어요.

 AI 화면 메시지: [안내: 강 오른쪽 10미터 지점에 얇은 모래길이 있습니다.]

"토끼야, 내 헬멧이 저쪽에 안전한 길이 있대! 같이 가보자!"

AI가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 물이 발목까지만 오는 얇은 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8장: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지만 물살이 조금 세서 토끼는 여전히 발을 떼기 무서웠지요.

"물이 차가워. 휩쓸려 가면 어찌지?" 수영을 잘하는 거북이가 토끼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토끼야, 무서워하지 마. 내 손을 꼭 잡아. 내가 꼭 붙잡아 줄게!" "고마워, 거북아. 나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할게!"



9장: 함께 건너는 강물

"한 걸음, 두 걸음!"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의 손을 꼭 쥐고 한 발씩 강을 건넜어요.

강 한가운데선 물살이 세게 흔들렸지만,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에 전혀 넘어지지 않았지요.

하늘의 드론들은 그저 두 친구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따뜻한 불빛만 비추어 주었습니다.



10장: 함께 도착한 협력의 지평선

강을 무사히 건넌 두 친구는 마침내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협력의 아치'에 동시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숲속 친구들이 모두 달려 나와 두 친구에게 박수를 보냈지요.

사자 백작님이 커다란 황금 트로피를 두 친구에게 안겨주었어요.

"서로를 믿고 용기를 내어 위기를 함께 이겨낸 너희 둘 모두가 오늘의 멋진 영웅이란다!"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를 마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